

'방탄소년단' 앨범으로 보는 기록들

2013년

6월 13일 데뷔앨범 '2 COOL 4 SKOOL' 발표

2017년

5월 22일 케이(K)팝 그룹 최초 '빌보드 뮤직 어워즈' 서 수상



정규 2집 '윙스(WINGS)

11월 20일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AMA)에서 K팝 그룹 최초 공연



다섯 번째 미니앨범 '러브 유어셀프 승 허 (LOVE YOURSELF 承 Her)

2018년

5월 28일 한국 가수 최초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 1위



정규 3집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 (LOVE YOURSELF 轉 Tear)

5월 29일 '페이크 러브(Fake Love)로 케이팝 그룹 최초로 빌보드 메인 싱글 '핫 100' 톱 10 진입

10월 24일 한류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화관문화훈장 수여

2020년

1월 한국 가수로는 처음으로 미국 '그래미어워즈' 공연



여섯 번째 미니앨범 '맵 오브 더 솔: 퍼소나 (MAP OF THE SOUL : PERSONA)

9월 1일 영어 싱글 '다이너마이트'로 한국 가수 최초 빌보드 메인 싱글 '핫 100' 1위

10월 13일 '새비지 러브(Savage Love) 리믹스' '핫 100' 1위

11월 25일 한국 대중음악 최초 '그래미어워즈' 후보 지명

12월 1일 '라이프 고스 온(Life Goes On) 빌보드 '핫 100' 1위

2021년

6월 2일 '버터(Butter) 빌보드 '핫 100' 1위

7월 20일 '퍼미션 투 댄스(Permission to Dance) 빌보드 '핫 100' 1위

10월 5일 콜드플레이와 협업한 '마이 유니버스(My Universe) 빌보드 '핫 100' 1위



11월 22일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 (Artist Of The Year) 수상

2022년

6월 10일 앤솔러지 앨범 '프루프(Proof) 발매



6월 14일 그룹 활동 잠정 중단 선언

활동 잠정 중단 방탄소년단, 눈물 쏟으며 전한 진심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14일 밤 유튜브 '찐 방탄회식' 영상을 통해 팀 활동 잠정 중단 소식을 전하면서 팬덤인 '아미'에게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사진출처 | 유튜브 영상 캡처

“아미가 우리 본질...BTS 오래 하려고 솔로”

멤버 중 첫 솔로 활동은 제이홉 7월1일 美 최대음악축제 올라 RM·슈가, 믹스테이프 앨범 출시 자체 웹 예능 '달려라 방탄' 계속 “우리만의 방송국, 존속시킬 것”

“챗터2의 시작이다!”

10일 앤솔러지(모음) 앨범 '프루프(Proof)'를 내놓으며 2013년 데뷔 이후 9년의 시간을 되돌아본 그룹 방탄소년단은 이를 “챗터1”이라 설명했다. 이제 이들은 그룹 활동을 잠시 멈추고 “챗터2”에 돌입한다.

14일 밤 팀 활동 중단을 전격 선언한 방탄소년단은 각 멤버들이 향후 솔로 무대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가장 먼저 솔로 활동을 시작할 멤버 제이홉은 이날 “개인 앨범에 대한 방탄소년단의 기초 변화를 이야기해야 할 것 같다”면서 “방탄소년단의 챗터2로 가기에 중요한 부분이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룹 활동의

최저점이자 중요한 관문처럼 여겨져 온 미국 그래미어워즈의 ‘한국가수 최초 수상’이라는 ‘역사’는, 기억 없는 “다음”으로 미뤘다.

●개별 활동 시작...제이홉이 첫 타자

방탄소년단은 16일 엠넷 ‘엠카운트다운’ 등 각 방송사의 음악프로그램 출연을 끝으로 그룹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 이후 멤버별 솔로 활동으로 “챗터2”의 문을 연다.

이들 가운데 제이홉이 먼저 나선다. 7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최대 음악축제 ‘롤라팔루자’에 헤드라이너(간판 출연자)로 무대에 올라 공연한다. 방탄소년단의 개별 멤버가 음악 페스티벌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제이홉은 “내가 시작이지만, 각자 솔로 앨범을 준비하고 있다”며 “그런 시작점이 중요한 것 같다”고 의지를 다졌다.

RM과 슈가 등도 그동안 선보였던 믹스테이프를 정식 앨범으로 변환해 선보일 예정이다. 이들은 믹스테이프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RM은 “믹스테이프는 원래 저작권도 없는 걸 대중 녹음해 기획사에 돌릴 때 쓰던 것인데, 우리의 믹스테이프는 노력, 시간, 자본이 웬만한 앨범 이상으로 투입됐다”면서 “믹스테이프라고 했던 콘텐츠가 앞으로 정식 앨범으로 본격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탄소년단은 이와 함께 자체 웹 예능 콘텐츠인 ‘달려라 방탄’은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진은 “그룹 활동을 중단하면서 대안을 낸 게 ‘달려라 방탄’을 조금씩 짤자는 거였다”고 밝혔다. RM도 “달려라 방탄’만큼은 존속시키자고 이야기했다. 우리만의 방송국인 거니까”라고 말했다.

●“건강한 플랜이란 걸 알아 달라”

그만큼 그룹에 대한 자신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자부심을 과시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날 멤버들은 각자 무대에 나서게 된 것도, 결국 “그룹 방탄소년단”의 앞날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 무게중심을 뒀다. RM은 2020년 2월 ‘온(ON)’ 이후 “대

규모 월드투어를 하고 개별 활동을 펼치려고 했다”면서 이번 선언이 갑작스런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뷔도 “우리가 여태까지 단체로만 집착을 많이 해서 개인으로 다 활동을 하든 될 하든, 다시 단체로 모이면 시너지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멤버들은 “방탄소년단을 오래 하려면 내가 나로 남아 있어야 한다”며 눈물을 흘렸다. 제이홉은 “너무 안 좋게 부정적으로만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굉장히 건강한 플랜이라는 걸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방탄소년단이란 팀이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것 같고, ‘챗터2’로 가기 위해 필요하고 좋은 시점인 것 같다”고 말했다.

팬들에게는 미안함을 전했다. 이들은 “여러분(아미)이 저희의 본질”이라며 “그래서 늘 여러분을 놓을 수가 없다. 지금 사실 괴롭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미워하실까봐서다”라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annjoy@donga.com

“자책하지 말라” “고민 깊이 공감” “믿고 기다리겠다”

슬픔 속 응원 보내는 아미들

“RM과 지민이 울 때 함께 울었다” “믿고 기다리겠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팀 활동 잠정 중단 소식이 전 세계 아미(팬덤)들이 충격의 눈물을 흘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속에서도 이제 멤버들을 직접 만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던 터라 충격의 강도가 더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결정에 박수를 보내며 “믿고 기다

리겠다”는 응원의 목소리를 키웠다.

방탄소년단이 14일 밤 “우리가 잠깐 멈추고, 헤이해지고, 쉬어도 앞으로의 더 많은 시간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알린 유튜브 ‘찐 방탄회식’ 영상은 반나절 만인 15일 오전 1000만 뷰를 넘기며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영어, 스페인어, 일본어, 러시아어 등 세계 각국 언어로 9만 여 개 댓글이 올랐다. 또 방탄소년단의 상징색인 보라색 하트 모양 이모티콘을 줄줄이 달면서 응원했다.

팬들은 아쉬움을 드러내며 “멤버들의

고민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일부는 RM과 지민, 제이홉 등이 “아미에게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리자 “자책하지 말라”며 위로했다. 트위터 등 SNS에서도 방탄소년단 관련 단어가 검색어 순위를 휩쓸었다. 팬들은 ‘아미 포에버(never), 방탄소년단 포에버’를 줄여 만든 구호인 ‘아포방포’, ‘#방탄의_수고는_아미가_알아’ 등 해시태그로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향후 제이홉을 시작으로 펼칠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도 드러났다.

미국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CN

N, 빌보드, 영국 BBC 등 주요 외신들도 관련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다. “BTS가 그룹 활동을 중단한다는 것은 팬들에게 엄청난 충격”이라는 워싱턴 포스트에 뉴욕타임스는 “현실적인 팬들은 응원과 슬픔이 혼재된 반응을 보였다”고 보냈다.

외신들은 방탄소년단의 향후 그룹 활동에 대한 기대의 메시지도 함께 전했다. 빌 보드는 “방탄소년단의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영국 BBC “세계 대중음악에 큰 영향 미칠 것”

멤버들 ‘쉽없는 활동 고갈’ 토로에 일각선 시스템 전환 새 구축 목소리

방탄소년단이 당분간 그룹 활동을 중단키로 하면서 케이팝은 물론 세계 대중음악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들이 전 세계적 팬덤을 구축하며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해온 글로벌 스타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방탄소년단은 2015년 세계 대중음악의

본거지 미국시장에 진출한 이후 영어권 스타 위주의 팝음악 시장에서 빌보드 1위권은 물론 다양한 수상 등 굵직한 성과를 이뤘다. UN 연설과 함께 최근 미국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아시아인 혐오범죄 근절 의지를 다지며 팬들의 지지를 이끌어낸 것도 이들의 세계적 영향력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만큼 세계 대중음악 시장에서 이들이 차지해온 비중이 비취 팀 활동 중단 선언이 ‘충격적’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영국 B

BC는 15일(한국시간) “그룹 해체는 아니지만 엄청난 팬들을 거느리며 이들이 최전성기를 누리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케이팝을 넘어 세계 대중음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가요계는 그래미상이 아직 방탄소년단에 대해 트로피를 주지 않아 이를 주관하는 미국 레코딩아카데미의 보수성에 대한 전 세계적 비판까지 나올 만큼 이들이 팝음악의 다양성을 확장했다는 평가에 주목한다. 이들의 그룹 활동 중단이 자칫 케이(K)팝 시장을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블랙핑크, 트와이스, 몬스타엑스, 스트레이키즈 등 또 다른 케

이팝 글로벌 스타들에 대한 기대도 그만큼 커진다.

일각에서는 케이팝 스타시스템의 변화를 전망하기도 한다. 리더 RM이 “케이팝 아이돌 시스템 자체가 사람을 속성하게 놔두지 않는다”는 직설을 내놓으면서 시스템 전환의 새로운 구축을 지향하자는 목소리이다. 정민재 대중음악평론가는 “멤버들이 쉽 없는 활동으로 고갈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토로한 것은 비단 이들에게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다”며 “재충전과 함께 추후 그룹 활동을 재개한다면 새로운 케이팝 활동 체계가 확립될 가능성도 있다”고 기대했다. 유지혜 기자